

KT전남전북광역본부-팜프로, 축산업 IoT 활용 업무협약

AIoT 이용 질병 등 건강상태 확인
KT, 초정밀 위치 관제 인프라 제공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지난 14일 IoT 기술을 이용한 가축 건강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 팜프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업 대상 IoT 기반 빅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 시장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oT(AI of Things) 기술을 통해 축산 동물의 건강 상태와 질병 여부를 판단해 동물복지 실현과 건강 보호 및 축산 생산성 극대화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팜프로는 다양한 센서 기술과 분석 알고리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축산 동물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팜프로의 주요 제품인 '팜플러스케어'는 IoT 기능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축산 동물의 신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상태, 심박수, 체온, 운동량 등의 다양한 지표를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를



KT전남전북광역본부는 지난 14일 팜프로와 '축산업 대상 IoT 기반 빅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공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축산 업체는 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KT는 안정적인 무선통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AIoT를 통해 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더욱 신뢰도 높고 안전하게 제공하며 KT의 통신망 검증과 기술 지원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 관제 및 클라우드 등 인프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병욱 팜프로 대표는 "KT의 AIoT 기술 및 안정성과 보안에 중점을 둔 IoT 통신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축산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축산 동물 건강관리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KT전남전북법인과객본부장은 "KT의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안정성과 보안에 중점을 둔 플랫폼을 필두로 팜프로와의 협력 및 국내외 IoT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가 어린이날 연휴 25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돌파하며 누적 1000만명을 돌파했다. '범죄도시4'의 흥행세는 전작 중 가장 빠르며, 최초로 3편 연속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범죄도시4' 포스터.

'범죄도시4' 1천만명 돌파... 최초 3편 연속 1천만

영화 '범죄도시4'가 15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공개 22일만이다. 역대 33번째 1000만 영화이자 한국영화로는 24번째다.

올해 10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파묘' 이후 2번째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온 1000만 영화로는 '범죄도시2'(1269만명) '아바타: 물의 길'(1080만명) '범죄도시3'(1068만명) '서울의 봄'(1185만명) '파묘'(1189만명) 이후 6번째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최초로 3편 연속 1000만명을 넘겼다. 앞서 시리즈 영화가 연속 1000만명을 넘긴 건 '신과 함께' 2부작(2017·2018), '범죄도시' 시리즈 두 차례였다. '범죄도시4'는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먼저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은 작품이 됐다. 2편은 25일째, 3편은 32일째 1000만을 넘겼다. 배우 마동석에겐 '범죄도시4'가 6번째 1000만 영화다('베테랑' 미포함). 김무열은 이번이 첫 번째, 이동휘는 '극한직업'(2019) '베테랑'(2015) 이후 3번째 1000만 영화다. 허명행 감독은 극장 영화 데뷔작으로 1000만명을 넘기게 됐다.

'범죄도시4'는 트리플 1000만을 달성하면서 한국영화사에 다시 나오기 힘든 흥행 기록을 썼다. 1편이 688만명, 2편이 1269만명, 3편이 1068만명

이 봤다. 4편 1000만명을 더하면 총 관객수는 최소 4000만명이 된다. 총 누적 매출액은 최소 29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개봉 전부터 '범죄도시4' 1000만을 예상했다. 전작 세 편을 향한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었던데다가 이 인기에 힘입어 '범죄도시'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이 아닌 밈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범죄도시4가 1000만 영화가 되지 못 할 거라고 예상한 업계 관계자는 보지 못했다"며 "완전히 망해도 최소 800만명은 볼 거라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세 번째 1000만 영화를 내놓으면서 1990년대 초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 이후 명맥이 끊긴 한국 프랜차이즈 영화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국영화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앞서 '신과 함께' 2부작이 있긴 했지만 이 작품은 두 편을 한꺼번에 찍어 순차 개봉했고 앞으로 후속작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영화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제작사 관계자는 "당장에 '범죄도시' 같은 형식의 영화가 또 나올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나올 한국영화의 좋은 성공 사례가 돼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비아농협, 하나로가족 우수고객 행사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홍식)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간 하나로가족 우수 고객 200여 명을 초청해 경남 사천시 일원에서 사은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사진)

'하나로가족고객'은 농협과 거래하는 고객의 수신과 여신, 신용카드 등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한 기준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우수고객이다.

이번 행사는 하나로가족우수고객의 광주비아농협 이용에 대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고객 대상으로 감사기념품 증정과 함께 다양한 사은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기람 기자



광주전남 적십자, RCY 합동입단선서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5일 RCY 합동입단선서식 및 스승의날 기념 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행사는 광주, 순천, 목포, 여수 메가박스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RCY 단원과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RCY는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통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청소년 단체다. 이번 행사는 RCY 창립 71주년과 제 61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단원들은 RCY 홍보영상 시청과 단원명세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지도교사에게 짧은 편지를 작성하고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헌혈캠페인과 환경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삼아 기자



유엔아이의원 목포점,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유엔아이의원 목포점이 대한적십자사의 대표 나눔 확산 프로그램인 '씀씀이가 바른 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사진)

유엔아이의원 목포점은 지역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기 후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은 위기가정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김근호 유엔아이의원 목포점 대표는 "후원이 위기가정의 자립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월 20만 원 이상의 정기후원자에게 '씀씀이가 바른 기업' 명패를 전달하고, 공익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삼아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 지난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다.(사진)

이날 참배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오월영령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자"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지역민과 상생하고, 어려운 지역경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인생역전' 김호중, 뽕소니에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이 '뽕소니' 혐의에 이어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소속사 측은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을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4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고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2009년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서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출연하며 화제가 됐다. 2020년에는



TV조선 노래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최종 4위 성적을 거뒀다. 이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블럭'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김호중은 '트로트'와 성악가 '파바로티'의 합성어인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지며 탄탄한 지지층을 얻었다. 그의 유년부터 독일 유학, 경연대회 출전 등 인생 역전 이야기 영화 '트바로티'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사기도 했다.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김호중이 광고계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인생 역전한 것처럼 하더니 안 변했다" "철면피다" "공연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